

■ 심포지엄 / 시상식 자료집

교회사회복지 네트워크 심포지엄

제 6 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고척교회 꿈의교육관 5층

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후원 | 소망회장품 **sOmang**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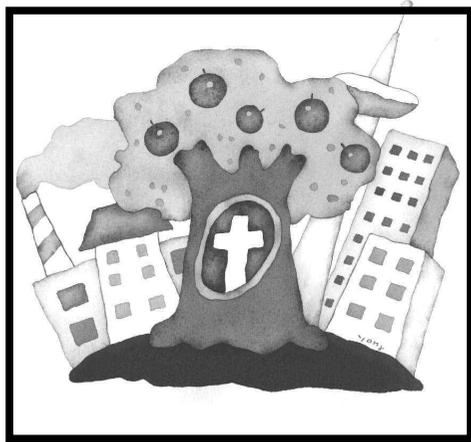
| 교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심포지엄

| 제6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賞)

| 부록

제 6 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심포지엄

목 차

교회 사회복지 네트워크 심포지엄

Ⅰ 좌장

김수정 교수(한성디지털대학 사회복지학과)

Ⅱ 주제발제

- 7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 전광현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실천사례
 - 김기연 사무국장(미래를 여는 아이들)

주제 발표 1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전 광 현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전광현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의 교회연합의 의의

1)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의 관계성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상적인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실천의 윤리적 당위성을 뜻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사회와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한편 윤리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교회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이원규.1994).

그러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역교회는 관계적 차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와는 완전히 분리해 놓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주민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즉 지금까지 지역교회는 교회가 존재하고 교인들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또 주민의 삶의 현실과 현장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역동적인 관계를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실천

종래의 사회복지의 선별적 복지로서 한정된 대상자만을 서비스하였다. 즉 경제적인 빈곤에 기초한 무의무탁한 주민들을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돌볼 수 없으므로 단순하게 잘 보살피어 준다면 그 사명이 다 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복지의 그 대상자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연계된 개체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존재된 주민들은 그들의 문제 및 니드가 복잡·다양하게 나타남으로서 이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개체로서의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연계, 통합,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이 등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복지시대에서 나타는 새로운 현상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효율성의 측면과 니드 충족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秋山 智久, 1999, 113-4).

우선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1) 서비스가 다양한 주체나 섹터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기에 우선 복잡하다는 것이며, (2) 의료·보건·복지의 행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종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3)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법령이나 조례, 명령에 필요 이상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유연성이 부족 되어 있다. (4) 복지 재정들이 긴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효율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니드의 충족의 측면에서 보면, (1) 인간 서비스의 전문직들이 가가의 전문성 범위에서 만 활동을 하지 생활·인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잘 되지 않고 있고, (2) 니드의 충족을 위하여 사회자원의 활용이 잘 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3)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이용자 니드의 충족을 위한 중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작금의 복지 니드를 충족하는 서비스들이 중복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전문 분화되어 있으며, 행정의 사회복지 전개가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의 동공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과연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 주민의 인간적인 생활, 삶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의 효율, 효과적인 접근을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교회와 사회복지실천

물론 종래의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는 괴리되고 분리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사회복지실천적인 의미에서의 한국교회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의 수준의 봉사를 실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이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더불어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듯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더불어 해결하여 할 것이다. 즉 통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실천에 몇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전광현 외,

2005, 413-420). 우선 한국교회의 일반론적인 문제점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부진의 이유를 대다수가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간상의 문제, 방법, 기술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아울러 교인들과 제직들의 낮은 호응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구조적 문제로서는 (1)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하여 왔다. 개인 구원은 각자 개인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는 신앙이 지배적이었고, 축복은 개인에게 내리는 선물이라는 신앙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반사회적, 탈 역사적 세계관을 만들어서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외면하게 만든 것이다. (2)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은 수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여 왔지, 수평적 사랑을 덜 강조하여 왔다. 한국 교회는 너무도 고상한 “하늘 신앙”에만 집착하여 왔지, “이웃 신앙”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교인들에게는 기도, 교회 출석, 성경 읽기, 헌금 등을 강조하고, 이를 잘해야 신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형태가 되어 교회의 적극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3)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선교를 주로 복음화로만 생각을 하여왔지, 인간화로는 생각을 못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선교를 복음화로 보기 때문에 전도의 성과는 매우 컸지만 선교의 인간화 차원이 간과되었기에 인간 생활의 복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4) 한국 교회는 개주의 교회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개 교회 즉 자기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힘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교회의 모든 힘을 이 부분에 투입,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본인들의 교회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어느 정도의 재력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에 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결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교회와 네트워크의 의미

네트워크가 무엇이냐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양한 분야 즉 사회학, 경영학, 기업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기에 각각의 영역에 따라 이해와 적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네트워크를 직역하면 “인간관계에서의 망(網)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결합원리에 기초한 생활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학자들은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부르며, 개인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혈연’, ‘지연’과는 다른 인간결합의 전체로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 행정관계자들은 두 개 이상의 행정조직, 많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복지행정과의 연계협동을 시키는 기구를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복지 행정자들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조직과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시민운동의 입장에서의 운동가와 운동가와의 시민적 연대와 결합 혹은 시민연대 집단 간의 연계라고도 한다(牧里每治 1994, 70-1). 여하튼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연락 조정이나 연계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며, 유지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조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연계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성취에 필요한 자원, 노력, 활동들을 통합하고 협력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자원을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각자가 원하고 계획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의 교회연합의 내용과 구조

1) 사회복지실천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인간서비스조직(Human Service Organization)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간서비스조직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복합적이고 변화가 심한 이익 집단들로 구성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둘째, 인간서비스기술은 불명확한 여러 과업과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규정이나 세부 규칙은 조직들과 인간 서비스요원들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셋째, 인간서비스기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서비스요원의 역할 수행과 산출을 감독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넷째, 요원-클라이언트의 만남은 조직의 통제를 쉽게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은

인간서비스조직이 비관료적 특성을 갖는 원인이 된다(성규탁, 1987, 218-20)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 가운데 실천이 효과와 효율을 갖기 위하여 공동적 네트워크로 가야하는 명확한 이유는 첫째, 경제적 현실성으로 중복서비스를 제거함으로써 고비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둘째, 가족중심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운동으로서 서비스는 개개 기관의 관료조직과 서비스 전달자들의 편의에 의해 수행되었던 실천을 반대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의 니드를 위해 기관 간에 조정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서비스나 팀 워크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조직의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갖고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간 연계관계 형성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자는데 있다.

2) 네트워크의 분류 실천형태

그러한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데 이를 우선 복지 조직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동업 동종간의 네트워크를 말할 수 있는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간에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2) 다른 종류간의 네트워크를 말할 수 있는데, 다양화하는 주민의 복지 니드를 위하여 다른 서비스 조직 간의 네트워크이다. 즉 보건, 복지, 의료와의 연계가 최근에 사회복지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인데 이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3) 지리적인 네트워크를 말할 수 있는데, 소규모 네트워크, 중규모 네트워크, 대규모 네트워크, 전국적 네트워크, 국제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4) 공적기관과의 네트워크이다. 행정과 NGO 조직과의 연계를 말한다. (5) 직능 단체와의 연계이다. 기능별로, 목적별로 분류되어 있는 단체와의 네트워크(今田 忠, 145-7)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는 서비스의 교환이나, 인재의 교환, 정보의 교환과 정부와의 교섭과 갈등의 해소 등으로 그의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능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1) 단신노인이나 허약노인의 케어 네트워크와 같은 마이크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요원조자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하며, (2) 당사자 조직, 셀프 헬프 집단, 자원봉사 집단, 실무자의 서비스 팀과 같은 메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소집단활

동, 사회참가 노하우의 제공 등을 하며, (3) 단체간, 조직간, 기관간의 연계, 연합체 형성을 하는 것을 매크로 네트워크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조직적 리더의 양성, 조직 운영, 계획 책정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을 할 수 있다(牧里每治, 1994, 73). 또 네트워크를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즉 보건·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마이크로 네트워크로 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활동이나 계획에의 주민참가, 사회운동, 사회개발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매크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같은 교파에 소속된 지역교회(노회 단위, 지방회 단위, 기타)들 간의 연합사업과 둘째는 지역사회의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연합사업(예컨대 지역교구협의회, 지역교경협의회 등)과 셋째로 지역과는 관계없이 사업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들의 사업들과, 넷째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협의체와 다섯째는 특정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다른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주체의 명칭을 특정교회 명칭과는 별도로 하는 경우와 여섯째는 지역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연합한 협의체이다. (사당 지역복지를 위한 교회협의회 사업보고서, 2005, 22-4).

한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심기관인 사회복지관과 지역교회의 네트워크를 교회사회복지실천의 형태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유장춘, 1998). 첫째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봉사적 동기로 출발되어 사회봉사를 교회의 일차적 중심사역으로 설정하고 실천하는 교회들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다일 교회의 다일공동체나 활빈 교회의 두레공동체, 화천의 시골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생겨난 맹인교회나 청각장애인 교회 같은 장애인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성격의 교회들은 매우 높은 동기를 갖고 대단한 열정으로 복지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단절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지역에 세워진 복지관은 이런 교회들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실천하고 전문적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 내의 다른 교회들을 조직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옹호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교회는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한 client들을 연결해주고 복지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며 그들과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성장하여 규모가 확장되고 어느 정도 시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이 형성됨에 따라 교회에 부속된 시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봉사관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병행하여 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교회들로서

덕수교회나 도림교회, 영락교회, 아현교회, 사랑의 교회 등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이들 교회들과 동역적 관계를 맺고 중복되거나 누락된 프로그램을 조절하고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 형식을 도입하여 한쪽에서는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기관마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교회의 여러 부서들 중에 구제부 또는 봉사부를 설치하고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는 등 보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교회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회봉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 부서들은 교회내의 행사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사회복지관은 이들 교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유능한 복지 인력으로 훈련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전문가들은 이들 중소 규모의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위해 동참할 의사는 갖고 있으나 재정적, 시설적 여유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형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기획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이디어와 정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관은 이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세적인 교회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집, 공부방, 놀이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전도적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한편 약간의 재정적 수익도 올리고자하는 활동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과도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보잘 것 없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사회복지관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상담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교회 성도 중에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교회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는 개별적 사회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기독교 사회복지의 한 구성원임에는 틀림없다. 복지관은 이들의 종교적 열정에 근거한 높은 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단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형태로서 장로교단의 경우연구조사와 정책수립, 자료제작, 교육실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옹호활동,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관련기관 운영 등의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관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옹호기

관에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문제, 복지 제도적 모순,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교단차원에서 개교회를 향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교회 연합적인 차원에서 큰 교단들이나 한 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협동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독교 TV나 연세대학교 같은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평택시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병원을 설립한 사례들과 같은 형태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매우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본다.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할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봉사라고 보여진다. 교회들 또는 교단들의 교리적, 제도적, 정치적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사회봉사를 통한 하나됨은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해서도 심지어 이교도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진다. 사회복지관은 이와 같은 연합 또는 통합운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경실련이나 기윤실 등과 같이 기독교계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 발족한 비영리 시민단체들로서 현안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의견과 시민의 입장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옹호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의 사역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 연계할 수 있다. 아홉째, NCC와 WCC와 같은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의 초교파적인 연합조직들이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과 국제적 기아사태 등에 대하여 정의구현을 위한 옹호활동의 형태가 있기도 하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의 제도적 불평등과 차별, 소외의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하는 지역사회의 보호자로서 이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에 지역교회가 동참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네트워크의 기능과 내용

관료화 사회, 단편적 전문화 사회가 앓고 있는 병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 “보완”의 기능이다. 서로의 교회조직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단점을 서로간의 연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교회조직의 활동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에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이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활동 단체는 교회조직의 운영상, 더욱이 인력의 활용상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갈 수 없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니드와 지역문제가 다양화되어가고, 복잡화됨에 따라 교회조직 자체를 확대하거나, 특성 자체를 간단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2) “연락조정”의 기능이다. 특히 거시적인 면에서의 지역사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치닫을 수밖에 없기에 거시적인 면에서의 네트워크는 더욱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자원의 활용상, 교회조직의 활동상, 중복되는 내용을 갖고서 불필요한 서로간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에 서로 간의 활동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정보의 교환과 공유화를 통하여 더욱 교회조직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의 보유와 지역사회 자원의 교환을 통하여 더욱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대립”의 기능이다. 대립을 생각할 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에 의견의 절충과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모든 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교회 조직이 다양화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밝힌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에 연합을 통하여 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 “대립의 완화”기능이다(上野谷 加代子, 1993, 48).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더욱 문제에 대한 공유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서로가 협력, 협조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교회조직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의 설정이 중요하다. 대립에서 완화로의 관계가 이상적이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의 소유와 권력과 재정의 확보로 자기의 주장, 자기만의 활동을 강조하여서는 자원의 활용이 바람직하게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과 인식의 공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교회조직들의 연계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로 동기와 방법의 연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활동은 높은 동기와 필요에 대한 욕구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전문적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교회가 가진 사랑의 정신은 높은 동기(motive)를, 교인들이 가진 지역에 대한 정보는 필요성(need)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복지관이 가진 전문성은 실천적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이다.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활동은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현된다.

교회와 복지관은 서로 인적자원과 실천현장의 연결, 시설과 프로그램의 연결, 또는 사회복지 지원체계로서의 하드웨어와 사회복지 운영체계로서의 소프트웨어의 연결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수요자와 서비스의 연계이다. 사회복지 수요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서비스는 수요자를 필요로 한다. 수요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발견되어야 하고 수요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 두 체계를 적절히 연계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와 복지관의 연계는 이러한 방면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3.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역의 교회연합의 과제

1) 네트워크의 구성의 중요한 요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복지의 방법론으로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 중요에 의한 네트워크도 몇 가지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조직이나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자체의 목적의 달성과 참여하는 각 교회조직이나 단체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여 참여를 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조직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강조되고, 이권을 찾으려고 할 때에 네트워크는 효과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 또 행정과의 네트워크에서의 불안정이 노출할 수 있다. 특히 행정과의 네트워크는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측의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보조금이나 사업의 위탁을 받은 위치에 있는 조직에서는 행정에 대한 종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이념과 목적에 의하여 다양한 조직과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경우 목적의 불명화가 나타나기 쉽고, 나아가 조직의 계속성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의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모양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도 개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움직이지만 소수의 몇몇의 관심과 흥미로 조직에 이루어 질 때 그 네트워크는 활동을 매우 위축되고, 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하여 조직만 만들면 “어떻게든 운영이 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간단히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하나 우려 속에서 네트워크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今田 忠, 2000, 125-9). (1) 인력이다. 네트워크

크는 본래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성공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다. (2) 참여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주체성과 대등성의 보장이다. 본래 단독이나 조직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각자의 소속된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영역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등한 참여의 기회와 민주적인 의견의 개진과 주어진 사업과 내용에 공평한 참여가 이루어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명백한 목표이다. 무엇 때문에 네트워크를 만들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치 않으면 단순한 친목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활동과 역할에는 무책임 적으로 의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네트워크의 규모 및 참여자의 수준, 정도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안정된 사무국과 책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과 조직의 본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잘 못하면 책임이 회피되며, 활동이 지지 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국과 정비와 이를 주도하고, 조직의 활성화에 도움 인력이 정확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자금의 확보이다. 네트워크 자체를 운영하던가 네트워크 자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단체와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6) 네트워크 운영의 리더십의 확보이다. 네트워크는 피라미드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민주적이며 횡적인 조직이므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도 이러한 특성 있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강조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이며, 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리더가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 참여한 조직과 개인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네트워크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7) 정보의 공유와 공개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불리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네트워크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편중과 불 전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야기해 네트워크 자체의 움직임과 목적에 장애 및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결과에서도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상황과 조건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네트워크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된다고 하여 과연 네트워크 자체의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가 가져야 할 다음과 같은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今田 忠, 2000, 129-32). (1) 네트워크 자체 목적의 우선화이다. 각각의 고유성과 목적을 갖으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체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요인에 의하여 네트워크의 본래적 목적에 장애를 주거나 결정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목적과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목적 달성 후에 해산된다는 것이다. 본래 네트워크는 본래의 목적에 의하여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조직이기에 이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거나. 또 참여하여야 하는 조직으로서나 역할이 그 기능과 목적을 다하였을 경우에는 해산되거나 교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경쟁에 의거한 활동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조직도 발전하고, 목적도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도 사회를 위한 조직이며, 활동이기에 그 과정이나 결과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선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참여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참여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자기 충족을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와 참여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의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의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요소들이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현대적 요소에 의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광현, 2004.).

2) 교회 연계활동에서 나타나는 과제

교회와 지역복지기관들과의 관계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유장춘, 1998)고 한다. 즉 첫째로 교회의 일차적 목표는 전도에 있지만 복지관과 시설들의 목표는 지역사회에 복지향상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기독교 법인의 복지관에서는 탈종교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와 기독교적 활동을 요구하는 교회와의 사이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서로를 향한 존재론적 정체감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복지기관을 교회의 외적성장의 도구로 설정하는 한편 복지기관들은 교회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출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교인 수를 늘리는 데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복지기관은 교회는 과연 기관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쓴다면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동역의 관계는 아닐 것이다. 상대에 대한 도구화로부터 상대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위적 경계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인은 기관의 목적을 설정하고, 책임자를 선임하며, 자원을 공급하고, 감사를 통한 평가와 감사를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며 기관을 운영하고 행정 하는 권한은 기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에 관계된 인사로부터의 청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넷째로 과시용 복지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보여 진다. 경로잔치나 시설방문 등, 일회성 행사를 통해 떠들썩하면서도 생색을 내는 전시성 사회봉사활동은 교회와 복지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의 장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성서적인 구제와 봉사정신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3) 교회의 연계사업을 위한 요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사랑은 나눔과 섬김, 관심을 갖는 것, 돌보아 주는 것, 함께 노력하는 것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 교회가 연합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가치관을 갖고 지역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설교, 기도, 교회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신앙적 가치 즉 신앙인이 바로 사는 방법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둘째, 교회의 활동이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교회 간에 닫힌 통로를 활짝 열고 목회문제, 교인문제, 지역사회문제, 봉사의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목회자, 당회원, 모든 교인들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담임목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특히 교회는 교회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셋째, 연합사업 조직을 위한 헌신자가 있어야 한다. 몹시 바쁜 일과 중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연합사업의 필요성을 심어주고 도전을 갖게 하는 헌신자가 꼭 있어야 한다. 넷째, 연합사업을 통해서 신앙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야 한다. 목회

자는 사회복지 활동을 할 경우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게 된다. 즉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등 신앙적 효과 면을 고려하게 된다. 협의회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이러한 질문에 예측가능하면서도 실제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책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합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회의 목회방침과 교회예산의 활용 등 공식적인 결의가 있어야 한다(사당지역복지를 위한 교회협의회 사업보고서, 2005, 25).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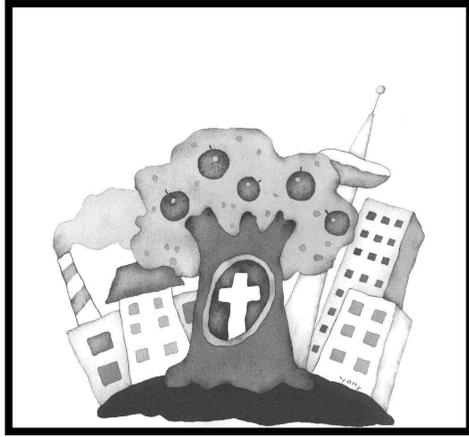
- 성규탁(1987), 사회복지행정조직론, 박영사.
- 이원규(1994), 지역사회현실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
- 전광현 외(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이해, 양서원.
- 유장춘(1998), 교회와 복지관의 연계로 보는 교회사회사업,
월평종합복지관 5주년 기념 세미나.
- 이현주(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광현(2004),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4집
- 사당지역복지를 위한 교회협의회 사업보고서, 2005,
- 秋山 智久(1999), 社會福祉 における 連携 “の内容と指標, 月刊福祉, 全國社會福祉協議會,
6月 號.
- 牧里每治(1994), ネットワークを知る, 月刊福祉, 全國社會福祉協議會, 5月 號.
- 上野谷 加代子(1993), 地域福祉活動計劃と小地域 ネットワーク活動, 月刊福祉,
全國社會福祉協議會, 5月 號.
- 今田 忠(2000), NPO - 起業・經營・ネットワキング, 中央法規,
- 松岡克尙(2001), ソーシャルワークにおけるネットワキング 概念の整理と課題,
“社會學研究科紀” 創刊號, 四國學院大學 大學院,
- 山手茂(1996), 福祉社會形成とネットワキング, 亞紀書房.
- 宮本孝二 外編(1994), 組織とネットワークの社會學, 新曜社.

주제 발표 2



지역사회복지 실천사례

김기연 사무국장
미래를 여는 아이들



교 회 상

목 차

3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농어촌

37 전원성결교회

40 후영순복음교회

중소도시

45 남원제일교회

51 백석교회

55 빛과소금교회

60 청주울량교회

대도시

69 울산교회

85 하남은광교회

특수목회지역

94 희년교회

[부록]

99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제6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심사 총평

조홍식(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선정사업을 6년 동안 꾸준히 행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또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소망화장품 강석창 사장님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 명예심사위원님과 심사위원님들, 이밖에도 드러내 놓지 않고 다방면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신산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간사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0개의 교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명예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전국 13개 교단의 총 28개 교회들이 응모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심사과정

전체 심사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1교회 당 2인의 위원들이 심사하여 평균치를 조정하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원래 서류 심사의 목적은 이미 밝혀진 선정기준 10가지 기준(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비중,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평가 방법의 활용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에 의거하여 수상 대상자 10개 교회 수의 약 2배수인 23개

후보교회를 선정하여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23개 교회에 대한 실사를 행한 후 점수(50점 만점)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때 실사 점수는 앞에서 밝힌 선정기준 10가지 기준(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 평가 방법의 활용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을 각 5점씩 총 50점 만점으로 하였습니다.

3단계는 2단계 실사 점수를 갖고서 전체 심사위원들이 모여 논의 끝에 4개영역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4개영역 구분은 접수된 교회의 지역별, 교인 수별 변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4개영역은 대도시 교회, 중소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및 특수목회사역교회 등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1차 선정된 23개 교회는 대도시교회 5개, 중소도시교회 10개, 농어촌교회 5개, 특수목회사역교회 3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들 4개영역에 따른 합계 점수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대도시 교회 2개, 중소도시 교회 4개, 농어촌 교회 2개, 특수목회사역교회 1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9교회만을 수상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4단계는 위의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두고서 명예심사위원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수합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9개 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2. 심사평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시상식 제도 6년을 맞게 되어 고무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10개 심사기준과 관련해 볼 때 접수된 교회들의 사회복지 활동이 기준 보다 대체로 상승해 가는 경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은 지역사회 문제 및 주민들의 욕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주로 보았는데, 점차 지역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2)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를 보면, 대예배실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를 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평가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4)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보면, 선정된 교회들은 사회복지 전문가 및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보면, 대교회의 경우는 전체 일반헌금 가운데 적어도 10% 이상, 작은 교회의 경우 30% 이상을 사용하며, 특별헌금 형식의 예산도 별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6)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보면,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사회복지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7)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의 경우는 교회 창립 때부터, 혹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부터 꾸준히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일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8) 평가 방법의 활용도를 보면,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 내용을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9)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이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지역사회 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회가 잘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형편과 조건에 일치하는 교회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독창성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매우 유사하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실사를 한 경우, 접수된 서류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회복지 담당 교역자나 담당 실무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마무리 글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너무나 훌륭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훌륭한 교회들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심사위원들과 명예심사위원들 모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9개 교회밖에 선정할 수 없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1개 교회 상금은 보관했다가 추후 좋은 교회가 나온다면 그 때 시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깝게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은 내년에 다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심사위원들 모두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렸습니다.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선정사업을 발전시켜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 후원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교회사회복지를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리는데 헌신할 것을 주님과 교회 앞에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번도 빠뜨림 없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망화장품 강석창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수상교회소개

<전원성결교회>



- ❖ 위치 :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403
- ❖ 담임교역자 : 한석봉
- ❖ 교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 교인 수 : 50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노래 교실, 사물놀이
-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농촌교회에 부임해 보니 교회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 처음 시

작한 것이 유기농업이었습니다. 유기농업이 우리지역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이었고 또 생소한 것이었기에 처음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점차 마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장수마을”이란 프로그램을 우리 마을에 유치하여 마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3개월 단위로 1년 내내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진단 및, 건강 체조, 이·미용의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앞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1.어르신 건강 노래교실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건강장수마을’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한기에 실시. 2007년 11월부터 2008년1월까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② 목적 및 목표 :

농촌의 어르신들이 농번기에 일을 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의 지루한 일과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함과 또한 고된 일에 지친 건강과 스

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래교실 및 건강 체조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돕는데 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시설은 작년에 완공된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인력은 시청 및 면에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소개 및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재정은 ‘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의 일부재정이 이 일에 쓰이게 되어있다. 년500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 흘러간 옛 노래 및 건전가요. 건강체조.

⑤ 협력기관 : 충주시 농촌기술센터, 면 사회복지과. 건강보험유지재단.

⑥ 파급효과

첫째, 마을이 하나가 되고 있고

둘째, 마을이 활기가 차며.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전도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마을 전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려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젊은이들을 계도하는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4월말에 우리 마을 10년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마을이 변화될 것이고 결국 최종 목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유기농마을과 그리고 예수 마을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 마을의 리더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농 교류를 위해 계획하고 있다.

2. “마을 맥추감사 .추수감사 .은 동네 주민 초청 잔치”

① 시행동기 및 역사

이 프로그램은 부임 첫 해인2003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② 목적 및 목표

처음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했으나 첫 해 실시해보고 난후 생각을 달리했다. 그래서 주민 위로 잔치로 바꾸고 장소도 교회가 아닌 마을에서 실시했다.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은 2년 전 부터 교회

에서 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라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준비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도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전도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③ 시설, 인력, 재정

시설: 본 교회 본당 및 식당. 야외.

인력: 마을 부녀회 및 본 교회 여전도회

재정: 년 1.000만원 (년2회 실시)

④ 프로그램 내용 : 해마다 다르다. 풍물놀이패 초청 및 주민노래자랑. 기타.

⑤ 협력기관 : 서울 신촌성결교회.



⑥ 파급효과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교회와 마을 간의 벽이 없어졌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파급효과에서 언급한 내용이 평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농사일을 적극 도움 예정이다. 교단에서 마련해 준 트랙터가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홀로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밭과 논을 로타리를 쳐 드리고 있다. 지금처럼 할 수 있는 한 저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총주 뮤직 아카데미.

① 시행 동기 및 역사: 2006년-현재

② 목적 및 목표

농촌지역의 교회 및 청소년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것을 모색하던 중 CCM.뮤지션들과의 연결로 농촌교회 찬양사역자들 및 청소년들에게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시설: 본 교회당 및 주변건물.

인력: 바울 엔터테인먼트(대표:정웅식) 와 그 외 선생님들.

재정: 본 교회 선교헌금(년 약 500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실용음악 위주로.. 미래적으로 실용음악 대학까지..

⑤ 파급 효과: 농촌교회에 반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또한 농촌에서 대학 진학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현재 10명 정도는 이미 그 단계에 까지 가 있다

⑥ 평가 및 추후 계획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촌교회들의 교역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년1회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CCM 사역자들이 다 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자리가 잡혀 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 중심인 총주에서 청소년들의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앞으로 제일 큰 계획이다.

4. 아·미용 봉사 프로그램



<후영순복음교회>



- ❖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27-5번지
- ❖ 담임교역자 : 김경준
- ❖ 교단 :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 ❖ 교인 수 : 출석교인 54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 1) 괴산군 중고등학생 장학사업
(3인 선정)

- 2) 유학생(괴산군을 떠나 도시로 간 고등학교, 대학생) 매월 가용돈 주기운동
(청천면4개리)
- 3)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매주 수요일 괴산군 단체참여)
- 4) 청천면 2개리 마을의 노인회 여가생활 지원운동
- 5)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
- 6) 농민 컴퓨터, 정보화 정기교육
- 7) 귀농교육과 귀농지원사업
- 8) 옥산 희망원 방문 및 물질지원
- 9) 도시와 농촌의 미자립 교회 재정지원운동

❖ 홈페이지: 선한농부마을(<http://www.im2u.co.kr>)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1) 교회 소개

후영교회는 1983년 2월에 장로교단으로 처음 개척되었습니다.

그 후 농촌의 몰락과 함께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소득 감소, 교육의 기회 의 불균형으로 후영교회도 자연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4년을 시무한 전도사님이 한 분, 3년이 조금 넘게 시무하신 분이 한 분이 이었고 그 외 이틀을 지내다 가신 분, 1주일을 지내다 가신 분, 3개월을 지내다 가신 분들이 열 분 정도가 있었고 목회자가 없어 비어 있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1992년 8월 1일에 김경준(본인) 전도사가 왔을 때에도 이러한 농촌교회와 농촌지역의 사정은 같았는데 성도는 2-4명에 교회건물을 낡고 비가 새며 창문 유리는 모두 없고 천정은 내려앉아 있어서 시급히 손을 보지 않으면 예배조차 가능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을이 산간벽지 오지마을의 전형적인 빈곤과 마을 주

민은 도시로 일년이면 서너 집이 이주하여 점점 빈집이 늘고 남은 주민들은 희망조차 갖지 못한 채 연세 드시거나 도시로 이사 갈 의욕조차 없는 분들만 남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2)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

따라서 본인 김경준 전도사도 도시의 목회지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남은 자들과 함께 무언가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서 사는 길을 제시해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는 [주님의 양들에게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써 궁극적인 최고목표인 영혼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활문제, 경제문제, 상호적 사회문제, 개인의 생활습관과 정신과 의지 등에도 적극 개입해서 인생과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인생의 결과가 있는 곳을 목표로 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앞장서서 가야할 의무감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감은 본인으로 하여금 목회자의 양심으로 농촌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게 했고 최소한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1993년부터 가나안 농군학교, 자연농업학교의 교육을 받거나 책자를 구입해 지식을 습득하여 농촌과 농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1996년 6월에 우리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우선 시급한 농촌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간벽지의 오지마을인지라 도시 근교농업도 안되고 골짜기와 계곡으로 이루어져 농사할 땅도 많지 않으므로 특용작물 농업을 계획하고 [도,동 직거래 운동]의 이름으로 우선 고추직거래를 실시하고 1998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999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에서 절임배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후영교회가 두 번째로 절임배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희망이 보이자 마을주민들도 적극참여하게 되었고 전도도 순탄하게 진행되어 교인 수가 늘어 부흥이 되기 시작했으며 마을의 젊은이들도 도시에서 귀농하여 동참하게 되자 잉여수익금이 생기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농가를 부요하게 하고 부자 농촌 마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지원하면서 얻어지는 수수료가 많아지면서 수수료로 얻어진 자금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는데 우리 마을 자녀 장학사업, 마을노인회 지원, 미 자립 교회지원, 독거노인봉양 등등을 통해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농산물 직거래 운동

① 시행동기 및 역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경제 문제이므로 농산물을 중간 상인이나 공판장에 내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찾아 높은 소득을 얻어 농촌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여 1996년 6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② 목적 및 목표

처음 시작은 우리 교인 농산물 팔아주기로 시작하였는데 점점 더 확장되면서 2002년에는 청천면 후영교회 목회 및 전도목표 지역 5개리의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괴산군수의 요청에 따라 괴산군 11개 면의 친환경농민 및 판매요청 농가 및 작목반의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 해주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의 운영목적 및 목표는 농촌과 농민의 직접적인 고통의 문제인 경제문제에 동참해서 함께 고민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인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문화까지도 기독교문화가 자연스럽게 마을과 지역에 정착하도록 복음화하는 것으로써 부농회가 요긴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1) 부농회 농산물 집하장 2) 사무실 3) 농자재 창고 4) 저온창고 5) 급냉동 창고
- 6) 인력: 무급인력 부농회장 및 총무, 유급인력: 정보간사, 사무 및 행정간사, 운영간사2인, 7) 재정: 2007년 결산 1억 3천만원 2008년 예산 1억 5천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 1) 계절별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계절 농산물 직거래 행사, 농가별 온라인판매 정보화 교육, 귀농 가정교육, 농특산물 친환경 영농교육 등

⑤ 협력기관

기하성 총회 농어촌국, 과산군청, 과산군 농가 및 작목반 운영협의회, 과산군 영농조합 절임배추재배 사업단, 과산군 영농조합 옥수수재배 사업단, 과산군 영농조합 과산장터 등등



⑥ 파급효과

농촌의 미자립교회가 후영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부농회 운동 통해 자립의 기회와 전도부흥의 기회, 지역과 마을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을 가지고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하고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농촌교회의 부흥이 기대된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교회가 사회문제에 깊이 관여함으로 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부설 부농회 사업을 교회사역과 적당하게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앞장서서 마을을 섬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접촉점을 통해 12년 동안 복음전파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부농회 사역을 통해 얻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와 재정적 이윤을 가지고 장학사업, 마을 노인회 복지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의 선한사업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이어 우리 마을의 자녀들이 도시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무료로 기거할 수 있는 기숙시설을 구입하고 원룸형태의 무료거주시설을 건축해서 양로원으로 가지 않아도 고향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마을 자체 복지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2.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 수익금으로 하는 복지사업

① 시행동기 및 역사

2004년 9월부터 직거래 수수료를 걷기 시작하여 얻어진 잉여자금으로 각종 복지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1)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

농촌은 소득은 적은데 대학을 진학하면 학자금이 만만찮은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서 도시로 유학을 간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독거노인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

괴산군 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드려 섬기고 있다.

3) 2개 마을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마을 노인회 활동비 지원

유류비지원, 노인회 관광여행지비원, 목욕비지원 등등

4) 정기적으로 영아원 방문

5) 중국선교사 사역을 위한 재정지원, 도시와 농촌의 미자립 교회 재정지원

② 목적 및 목표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는 교회운영에 조금도 보태지 않는다. 교회는 순수하게 100% 재적성도들의 헌금으로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설부농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사업, 간접적인 전도와 교회 이미지 쇄신사업, 노인복지, 아동복지, 지역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앞으로 후영교회 부설 부농회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시설 구입과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인대 원룸을 지어 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한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모든 시설과 인력과 재정은 후영교회와 부설 기관인 부농회에서 책임하고자 한다.

④ 협력기관 : 총회 농어촌국

⑤ 평가 및 추후 계획

현재까지는 후영교회 자체의 노력과 추진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 우리지역의 복지 재단과 괴산군청 및 각 면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복음 사역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남원제일교회>



- ❖ 위치 : 전북 남원시 쌍교동 234-1
- ❖ 담임교역자 : 김금용 목사
- ❖ 교단 : 한국기독교장로회
- ❖ 교인 수 : 1,000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무료급식, 남원시종합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평화의 집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23:22)

❖ 프로그램 소개

● 섬김의 축제

1. 시행동기 및 역사

- ◎ 동기 -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에 남원지역의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교회와 사회복지기관 들이 함께 준비하는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 역사 - 2004년부터 11월(3일간) 중 실시
- ◎ 대상 - 매년 2기관과 20가정에 600만원 가량 지원

2. 목적 및 목표

- ◎ 목적 - 남원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가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함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역사회 선교의 역할을 실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표

- * 남원지역의 차상위 계층의 client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 겨울을 보내기 위한 동절기 전기제품 및 유류 지원 실시
- * 각 사회복지 기관을 연계하여 인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 시설 - 지역의 예식장을 후원 받아 장소 사용

- 인력 - 기획팀(5명) / 홍보팀(10명) / 지원팀(100명) 으로 구성
- 재정 - 매년 약 6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전달 함

4. 프로그램 내용

집고치기	1.장소 : 지정장소 2.일시 : 12월중 3.대상 : 장애인 4.방법 : 장애인복지관, 소망의 문, 남원제일교회 및 참여단체가 연대하여 접수리
겨울나기	1.장소 : 지정장소 2.일시 : 12월중 3.대상 : 무의탁노인(차상위계층) 4.방법 : 김장나누기, 쌀나누기, 연탄나누기, 기름나누기
문화행사 및 문화차집(먹거리장터)	1.장소 : 노벨웨딩타운 백악관 건물 2층 식당 2.일시 : 3일간 3.인원 : 여신도와 청년회 지원 4.장비 : 각종 식당 기자재 5.방법 : 음악회 / 발표회 / 음식 바자회
특별전시회	1.장소 : 노벨웨딩타운 백악관 계단 및 입구 2.일시 : 3일간 3.인원 : 복지관 및 소망의 문 참여 4.장비 : 배경음악 5.방법 : 사진게시 및 기관 홍보

5. 협력기관

- *남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이용시설) - 행사지원 / 대상자 선정
- *소망의문(노인전문요양시설) - 행사지원 / 대상자 선정
- *평화의집(지적장애인생활시설) - 행사지원 / 대상자 선정
- *남원문화원 - 문화공연 지원

6. 파급효과

연중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정하여 지원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꼭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개조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였다.

7. 평가 및 추후 계획

* 평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기독교의 섬김의 정신을 잘 표현 할 수 있었으며 협력는 인력이나 기관에서도 능동적인 참여로 협력 시스템이 잘 유지 되고

있다.

* 향후계획

지역의 문화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음식과 문화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대상자를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이주여성 가족에게까지 확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섬김이 축제 준비>



<섬김이 축제 공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집고치기>



<섬김의 축제 나눔>

■ 나눔선교회[무료급식사업]

1. 시행동기 및 역사

- ◎ 동기 - IMF이후 형편이 어려운 이웃 가운데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이웃이 있어 자유스럽게 음식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생성 되었다.
- ◎ 역사 - 2001년 4월부터 매주2회(화,목) 점심 식사제공
- ◎ 대상 - 매회 40명가량 식사제공

2. 목적 및 목표

- ◎ 목적 -의,식,주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 중에 함께 먹거리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정적이며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슈화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며, 그 시작이 바로 이러한 작은 식탁의 나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목표

- * 지역 주민 중 점심식사를 필요로 한 주민에게 무료급식 제공
- * 교인들 및 당회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소외감을 줄인다.
- * 급식의 자율화를 위하여 대상자 선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3. 시설, 인력, 재정

- ◎ 시설 - 제일교회 내 식당에서 이루어짐
- ◎ 인력 - 제일교회 여신도회별로 순환제 봉사 활동
- ◎ 재정 - 연간 200만원 가량 예산 수립

4. 프로그램 내용

식탁나눔	매주 2회 점심식사 제공
밑반찬지원	매월 1회 100여가정 지원
봉사원 역량강화(empowerment)	연1회 봉사자 정신교육

5. 평가 및 추후계획

- * 식탁나눔 매년 실인원 15%가량 증가 (연인원 3,840 정도)
- * 밑반찬 지원 연인원 1,200 가정 지원
- *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교회 활동
- * 신앙 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문 등 지원
- *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의류,생활용품 등) 지원 확대

■ 사회복지 기관 운영

◎ 목적 - 남원지역에 복지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용 및 생활 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과 자립의 훈련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꾀한다.

◎ 기관소개

■ 소망의문(노인전문요양시설)

- * 연혁 - 1998년 4월 20일
- * 직원수 - 25명
- *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여가활동지원, 나들이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 * 입소자 인원 - 65명
- * 교회지원금 - 연1,200만원 지원

■ 남원시장장애인복지관(장애인이용시설)

- * 연혁 - 1998년 4월 1일 개관
- * 직원수 - 35명
- * 프로그램 - 치료 교육 서비스, 정보화교육, 재가복지, 상담, 사회재활, 교육재활 등
- * 입소자 인원 - 일일 평균 150명 이용
- * 교회지원금 - 연 2,400만원 지원

■ 평화의집(지적장애인생활시설)

- * 연혁 - 2007년 5월 8일 입주예배
- * 직원수 - 8명
- * 프로그램 - 일상생활지원, 독립생활훈련, 여가프로그램
- * 입소자 인원 - 10명
- * 교회지원금 - 연1,200만원 지원

◎ 향후 계획

1. 지역 인프라 형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상향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 형성을 위해 교인 가운데 전문 인력풀을 생성하여

자생적인 전문집단을 운영함으로 기관과 교회,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복지를 실천하도록 한다.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현재 진행 중 인 프로그램 외에 어린이집이나 나들이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만족 할 수 있는 교회 이자 사회복지 기관으로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나눔의 실천 확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사명을 다하여 가정지역의 선교를 시작으로 세계선교로의 활동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 1인 1나눔을 계획하여 교인 전체가 복지가로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갖도록 관심과 노력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남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소망의문>



<평화의 집>

<백석교회>



-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50-4
- ❖ 담임교역자 : 신석현
- ❖ 교단 : 기독교대한감리회
- ❖ 교인 수 : 50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재활용 초록가게
- ❖ 홈페이지(교회카페):

<http://cafe.godpeople.com/bsmc1999>

* 초록가게 카페 / <http://cafe.naver.com/chorokshop>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1999년 설립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안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고 마땅한 사역이 있음을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2000년 6월 온 교인이 환경주일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가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 파괴되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더 나가서는 환경파괴가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심각성을 깨닫고 피조물들을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시대적인 사명이 곧 환경살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는 생태적인 회심을 통하여 환경살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맨 처음 작은 실천으로서 교인들끼리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주일날 가져와 교환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주민센터 옆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날 개정하게 되었다.

❖ 프로그램 소개 (내용에 따라 사진을 첨부하세요)

1. 환경살림 초록가게(재활용, 환경상품, 유기농산물, 환경홍보 및 실천)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2000년 6월18일 환경주일 예배를 드림(환경지킴이 헌신). 환경살림 사명감 고취.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가입. 교회 내 환경부 신설. 환경실천 정보나 사례 및 환경영상, 환경 다류 영상물 감상. 3분 환경 교육 및 환경실천 발표

- 2000년 8월6일 교회 안에 작은 초록가



백석초록가게

게 오픈.

- 2000년 10월14일 제1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초록가게 환경바자회 개최.
초록가게 매장 현판식.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전시, 환경전도지 마련.
- 2001년 3월3일 길거리 초록가게 시작. 환경상품 병행전시 및 판매.
- 2001년 4월22일 환경살림 재활용품 창고 및 매장용 컨테이너(3m×6m) 구입.
- 2001년 4월부터 벽제 동광원, 내곡동, 장항동, 현재 대장동 농장 운영 중.

(중략)

- 2006년 5월20일 기독교 타임주 선정 환경상 시상
- 2006년 5월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
“녹색교회”로 선정

-2007년 4월18일 생명의 쌀(유기농) 나눔 협약식(충남홍성 밀알교회와 협약)

-현재의 상황

매주 토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열고 있으며,

봄 가을 년2회 주제가 있는 환경살림 이벤트 행사 개최(유기농 먹거리 추가).

매주 2~3명씩 구성된 4개조가 돌아가면서 봉사.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지역주민들과 소개를 받아오신 분들, 공장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등 30~40명 정도가 이용. 노숙자 무료 이용.

매주 교회 앞 길거리청소 실시.

주말농장운영(농장장 임명)을 통하여 무농약, 무비료 등 환경친화적 농사체험.

생명밥상운동(유기농산물 애용, 음식쓰레기 제로운동 등) 실천.

자연신경 낭독

② 목적 및 목표

- 창조신앙에 입각하여 생활속에서 소비를 줄이거나, 한번 사용한 물건을 재사용 함으로 자연(자원)의 급격한 소모와 훼손 및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 기부를 통한 나눔운동과 경제 살리기 운동
- 환경문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의 실천과 교육의 장
- 교회가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

③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환경살림 재활용품 창고 및 매장용 컨테이너(3m×6m), 환경상품, 유기농산물 전시 매장(교회)
- 인력 : 매주 2~3명씩 구성된 4개조가 1주씩 돌아가면서 봉사
- 재정 : 초록가게 판매 수익금 총2,407,630원(2007년)
- 수익금의 사용처: 지역 불우한 이웃, 심장병어린이 수술비 지원, 소년 소녀 가장, 방학중 결식아동지원, YMCA흰돌마을 사회복지 노인무료 점심 식사 지

원, 기독교 환경연대 후원, 러시아 선교사 돕기, 동북지역아동센터. 생명의 쌀 기독교운동본부, 기타 비 정기적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및 북한어린이 돕기 등

④ 프로그램 내용

- 재활용 초록가게(재활용 생활용품, 환경상품 및 유기농산물)
- 환경 농장 운영 및 생명밥상 운동

⑤ 협력기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동북지역아동센터, 생명의 쌀 기독교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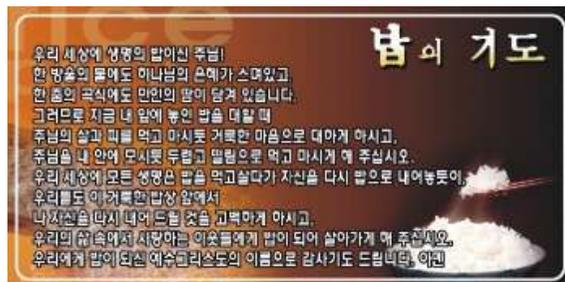
<생명의 쌀 협약>

⑥ 파급효과

- 매주 초록가게 이용주민 평균 20여명. 기부를 통한 나눔운동 확대
- 재활용 운동을 통한 절약운동
- 수익금을 이웃과 기관에 나눔운동
- 구체적인 환경살림 실천을 통한 창조세계 보전과 회복운동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 매일 여는 상설매장 마련
- 교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초록가게 회원 모집.
- 정기적인 환경살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록교회 건축 / 친환경적 구조, 에너지 절약 구조, 초록가게 시설, 태양광 발전소 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노약자, 장애우,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p><녹색교회 패></p>	<p><환경살림 이벤트 행사></p>	
<p><먹거리 홍보물></p>	<p><서울연회 시범사업></p>	<p><농장></p>
<p><환경주일 연합예배></p>	<p><태안 기름제거 활동></p>	<p><백석교우들></p>

< 빛과소금교회 >



- ❖ 위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7-5
- ❖ 담임교역자 : 신동식 목사
- ❖ 교단 : 합동
- ❖ 교인 수 : 40명
- ❖ 홈페이지:
<http://lightsalt.onmam.com>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 ① 지역 경로당 돕기 ② 독거노인 김치봉사 ③ 명절 독거노인 및 노숙자 선물보내기 운동 ④ 지역을 위한 도서관 사역 ⑤ 방과 후 교실 ⑥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운영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교회가 지역에 세워진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명도 함께 가야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지역을 섬기는 것은 창조의 명령이며 재창조의 명령입니다. 즉 이것은 비전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야 함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바로 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은 열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섬김의 사역은 2004년부터 준비하였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목적 및 목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목표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복음 전도와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3) 시설, 인력, 재정

시설 : 공부방과 도서관을 위한 시설을 준비되었습니다.

인력 : 자원봉사자[교인,봉사자]를 통하여 운영합니다.

재정 : 일차적으로 교회의 예산과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의 재정 목표는 행정 4, 교육,3, 봉사 3]

4) 프로그램 내용

▶김치반찬 및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해마다 김장과 한달에 한번씩 김치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주는 사역입니다. 주교동지역에 반찬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있지만, 김치를 나누는 단체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꼭 필요한 반찬이 김치란 생각에서 입니다. 김치반찬 나눔 봉사는 전날에 김치를 직접 담가서 10봉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지체들이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집을 방문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김치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적어준 주소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방문 중에 소개를 받게 된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 방치된 독거노인이 있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까마득한 분도 있었으며,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방문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들을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점심 식사 봉사

빛과 소금교회 바로 옆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식사(주로 삼계탕)를 준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식사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경로당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명절에도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공부방 봉사

교회건물 3층에는 쉼터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약 2천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새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사역이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특별 수업으로 독서지도와 논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청년 라브리 지체들이 섬겨주어 영어 특강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초

등학생이 갈 수 있는 공부방은 있지만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빵 나눔 봉사

금요일 마다 힌돌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공급받은 빵을 공부방 아이들과 독거노인 10가정 정도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겨자씨 사랑의 집 봉사

이곳은 성인 지체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오래전부터 교류하여 왔으며 청년들이 격월로 방문하여 꽃꽂이와 꽃 심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사랑의 집 봉사를 위하여 청년들이 번개 바자회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마련한 재원을 통하여 교육 및 사랑의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독거노인 및 노숙자 선물보내기

매년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약 100명의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에는 크리스천라이프 센터에서 제공하는 떡을 선물하고, 성탄절에는 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금과 은이 없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의 무너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이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교동 지역에는 지하의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이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5) 협력기관

- ① 고양시 위스타트
- ② 힌돌 종합 사회복지관
- ③ 주교동 주민 자치센터
- ④ 문화와 설교연구원
- ⑤ 크리스천라이프센터

6) 파급효과

① 사역에 있어서 단순히 물질이나 재정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고 나누어주는 사역임으로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감사와 기쁨을 나눕니다.

② 지역 사회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데 역할을 감당합니다.

③ 지역의 기관들과 효과적인 나눔을 가짐으로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① 공부방 사역은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등부 중심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최근에 초등부를 중심으로 한 위 스타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에만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 중등부를 위한 사역으로 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독거노인 김치 봉사 사역과 푸드뱅크 지원 사역은 지역단체와 친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③ 독거노인 및 노숙자 선물보내기 사역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올해는 4개 교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지역을 넘어서 열약한 교회들이 섬길 수 있는 길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는 세 개 교회를 도왔는데 2008년에는 네 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크리스천라이프센터의 성탄절 및 설 행사를 실천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④ 사회복지 위원회를 좀 더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 청주율량교회 >



- ❖ 위 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61
- ❖ 담임교역자: 고 중 복
- ❖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
- ❖ 교 인 수: 200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한자학당, 영어교실, 어린이영어교실, 탁구교실, 사랑나누기
- ❖ 홈페이지: www.yulryang.org

❖ 교회소개 및 사회복지하는 계기나 이유

청주율량교회는 1988년 10월 29일 고중복목사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져 20년 동안 사역을 해오고 있다. 처음 개척시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 신우회의 헌금을 통해 지하 20여평의 작은 홀을 얻어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 지역사회 필요를 깨닫고 어린이집 시설을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렵고 홀로계신 무의탁노인 8명을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하여 모시면서 노인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하여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을 다 출가시켜 홀로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면서 그들을 살피게 되었고, 교회 식구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음을 알고 2003년 10월 실버 빌리지를 건축하여 어르신들을 섬겨 오던 중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실버빌리지를 2007년 2월 요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교회에 대한 좋은 사역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고 교회 주변은 임대아파트와 작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40여명을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행복한 홈스쿨이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부영어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00여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프로그램 소개

1. 탁구교실

1) 시행동기 및 역사

울량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울량 사천동 동사무소는 울량동 주민들에게는 도보로 다니기가 편리하지만 사천동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울량 교회는 행정구역상 울량동으로 들어가지만 울량 사천동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서 오히려 사천동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된다. 울량교회는 동사무소와 지역사회 행사시 장소를 무료로 개방해오고 있었고 그런던 중 울량사천동장님께서 사천동 주민들이 너무 멀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고충복목사님께서 기꺼이 주차장을 2006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 1월부터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 ① 지역사회 내에서 전반적인 지역사회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 ② 교회건물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시설은 울량교회 부설인 상당요양원 지하 주차장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탁구교실을 만들었으며 인력과 재정은 울량 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시설관리부분만 상당요양원 관리집사님께서 관리하고 있다.

4) 프로그램 내용

탁구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1주일에 2회 강습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와서 탁구를 치고 있다

5) 협력기관 : 울량 사천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6) 파급효과

교회에 한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단지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서 교회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상이 좋아졌고 또한 교회 김장이나 요양원 김장등 인력인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1년동안 진행이 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다들

만족해 하셔서 탁구회원이 20명에서 5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서 장소 확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행이도 율량교회에서 현재 청소년 복지센터를 건립중인데 그 곳이 완공되면 탁교교실을 이전해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계획이다.



2. 생활영어교실

1) 시행 동기 및 역사

이 지역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옮겨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06년 고중복 담임목사님이 율량·사천 동사무소에 율량교회 교육관을 개방함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07년 2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1기생을 마쳤다. 현재 2008년 2월부터 2기생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2) 목적 및 목표

- * 지역주민들의 교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 지역주민과 성도들간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 * 영어교육을 통한 글로벌사회의 요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 시설 : 교회내의 교육관
- * 인력 : 목사님의 교인들 중에서의 교사 추천과 자발적인 참여
- * 재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월 약 2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받고 있음

4) 프로그램 내용

- * 수업시간 : 주 2회 2시간씩(주민자치 프로그램 계약 규정)
- * 주부 생활영어 내용 : 1교시 - 기초발음 학습과 어휘 학습
2교시 - 회화 학습
- Phonics, Exploring English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적 구입을 하고

Tape과 CD로 매시간 듣기학습을 병행한다. chant, song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교재가 끝나고 나면 동기부여를 위해 Pop song을 배운다.

* 방과후 아동영어 내용 : 저학년 - 기초 알파벳과 소리값(Phonics) 학습, 어휘학습

고학년 - 문장 학습으로 회화 학습과 쓰기 학습

- Phonics, Let's go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적 구입을 하고 매시간 chant와 sing으로 흥미유발하고 율동을 만들어 하루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성경 노래를 영어로 부르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지역 아동센터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들의 자녀들을 참여시켜 수업 진행을 한다. 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연계하여 주일학교 예배 참석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5) 협력 기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고 있어서 1~2월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며 주부생활영어와 방과 후 아동영어 2가지 프로그램 모두 수강료뿐 아니라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6) 파급 효과

울랑교회의 다른 사역들 상당노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예일어린이집을 알릴 수 있으며 현재 건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수업을 듣는 분들이 요양원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기독교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울랑·사천동 지역의 주민들 뿐 아니라 청주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를 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울랑·사천 주민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청주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영어 뿐 아니라 교인 중의 쉼트 교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3. 한자학당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청주실버빌리지(현재 상당노인요양원으로 사업 변경)는 70대 초반에서 9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계신 공동주거시설로 보증금과 일정의 생활비 부담을 하시고, 또한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서 자력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다. 이런 노인시설은 보편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낙인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며,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에서 보기에 건물자체가 빌라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다.

때문에 지역에 빌리지를 홍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친숙함을 주며, 지역 어르신들이 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에, 시설에 입주하신 어르신들 중 학습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10명을 선정하고 지역주민 30명을 선정하여 총 40명을 모집해서 한자학당을 운영함으로 지역주민에게 우리 시설을 알리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자 한다.

2) 목적 및 목표

(1) 목적 - 한자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본 시설을 홍보함으로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준다.

(2) 목표

- ①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지역에 본 시설을 알릴 수 있다.
- ② 프로그램을 통해 다도, 서예 등 옛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며,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제공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① 시설 - 율량교회 교육관 활용
- ② 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3명
- ③ 재정 - 1,000,000원
- 공동모금회 테마 기획 사업에 프로포절 신청을 하여 선정되어 예산 지원

4) 프로그램내용

사업명	일정	목표	사업진행내용
프로그램 홍보	7월~8월	본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확보한다.	1. 본 시설에 계신 어르신 중 프로그램 가능한 대상자 확보한다. 2.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자를 확보한다.
대상자모 집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확보한다.	
강사 섭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소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섭외한다.	
오리엔테 이션 및 프로그램 진행	8월-9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자학당의 프로그램과 진행일정을 설명한다. 2. 일상용어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에 사용되는 한자어를 습득한다. 3. 서예교실 서예의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서예를 배울 수 있다. 4. 예절교육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에 대해 설명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절과 차 예절을 익힐 수 있다. 5. 민속놀이 윷놀이를 하면서 전통놀이에 대해 이해하며,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 한자강의(총4회) 3. 서예교실 4. 예절교육(총2회) 5. 민속놀이 6. 수료식
프로그램 평가	9월	자체 평가를 함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알고, 향후 보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2. 수행인력의 자체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5) 협력기관

- 율량행복한 홈스쿨

6) 파급효과

	경험적/관찰 자료 내용	설문조사/통계 자료 내용
□ 긍정적인 변화(반응)	1. 시설 어르신과 지역주민과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음. 2. 한자뿐 아니라, 다도시연,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음.	참여한 대다수가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 부정적인 변화(반응)	1. 폭넓은 연령층으로 인해 참여자간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음. 2. 한자, 서예 등 프로그램이 일회성이라서 흥미 유발에 부족함이 있었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아동들에게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어려워서인지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본 사업의 취지가 본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단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시 처음에는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도 느꼈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무리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편견이 없어지면서, 이를 지역에 알리기로 하여 홍보효과가 있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총 5번의 프로그램 진행을 마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실버빌 어르신들간에 교감을 이룰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추후에는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보다 나은 효과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으로 지역주민과 교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예일어린이집

1) 시행동기 및 역사

예일어린이집이 율랑교회와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 2년전부터 4월과 11월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랑나누기”라는 주제로 3월(4월)에는 관공서 및 부설기관인 상당요양원에 부활주일 계란 바구니를 돌리게 되었고, 11월에는 떡상자를 포장해서 역시 지역 관공서와 요양원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됨으로 아이들에게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르신들 생신잔치때에는 아이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2) 목적 및 목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요즈음 예일 어린이집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보다 우리”가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지도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예일어린이집 및 상당요양원 소 무대
- 인력- 예일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 재정- 예일어린이집에서 부담

4) 프로그램 내용

- 부활절 계란나누기- 부활주일이 있는 3월또는 4월에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예쁘게 아이들과 장식하고 포장해서 바구니에 담아 아이들이 직접 들고 나가서 관공서 및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림
- 소공연 및 떡돌리기- 상당요양원 어르신들 생신잔치때 축복송(생신축하노래) 및 선물드리기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축하잔치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떡을 주문해서 작은 상자에 담아 포장을 해서 역시 지역 관공서와 상당요양원어르신들에게 돌리고 있다.
- 공동모금회 후원금 하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협력기관- 상당요양원

6)파급효과-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에게 계란을 돌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율랑교회 부설인 예일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소공연 및 생신축하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나눌수 있는 마음을 심어줄수 있다.

7)평가 및 추후계획

조그마한 고사리손으로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고 아이들 또한 어려서부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핵가족으로 인한 어르신들과의 간격을 줄일수 있어서 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울산교회>



-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448-6
- ❖ 담임교역자 : 정 근 두
- ❖ 교단 : 교신
- ❖ 교인 수 : 출석교인 2,500명
- ❖ 홈페이지: www.betogether.or.kr
-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 나 이유

1956.1.1 교우 6인의 가정예배로 시작된 울산교회는 지금까지, 4번의 도약기를 거치면서 내·외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1996. 1. 2 정근두목사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적극적인 선교전략과 함께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7.9.4 경로대학 설립을 시작으로, 2002. 4. 21 장애아동부서 백합부, 2003년에는 1.16 어린이공부방, 5.3 어린이도서관, 9.17 청소년공부방 및 대안학교를 열었고, 2004년에는 2.29 외국인을 위한 영어예배, 3.9 꿈생유치원 개소에 이어 10.29에는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를 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러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이주외국인을 위한 통역예배를 시작하여 그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실을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더구나 2008. 4. 12에는 이주외국인 쉼터를 마련하여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의 도약을 계획 중이다.



1. 밝은미래 경로대학

① 시행동기 및 역사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교회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1997.9.4부터(매주 목요일 10:00 - 13:00) 1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② 목적 및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건강한 신체 만들기과 골드에이지의 여유를 누린다.

③ 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 : 밝은미래복지재단 2, 4, 5층, 울산교회 지하식당, 아이용실 등

나. 인력 : 피아노 반주자 1명, 강사 9명

다. 재정 : 2008년 예산 2,500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하나반(한글, 수학반), 성경반, 서예반, 영어반, 종이접기반, 노래반, 에어로빅반,, 종이접기반(8개 반), 생활스트레칭, 무료경로식당운영, 무료 아미용봉사, 무료백내장수술, 봄가을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생명사랑나눔 축제, 산업체 견학, 외국나들이(2-3년 마다) 등.

⑤ 협력기관

중구 노인지회, 중구 생활체육회, 문수실버복지관. 중구 미용사협회, 울산교회 여성교회 등.

⑥ 파급효과

울산시내 노인복지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에 밝은미래 경로대학이 10년째 운영됨에 따라, 울산교회 이미지선교의 가치를 높이고, 노년층을 위한 마지막 선교의 장으로 활용된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1997.9.4 시작 당시에는 울산교회 내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르신 중, 교인과 비교인이 1:1을 이루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인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2008년 2학기부터는 밝은미래 경로대학을 중심으로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2. 꿈마을 지역아동센터

① 시행동기 및 역사

본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 중구 복산동 일대는 저소득층 밀집 및 유흥업소의 밀집 지역으로 아동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유해환경 지역으로 손꼽힐 정도이다.

행정기관 및 경찰청 등 치안 유지 및 지역사회 질서를 꾀

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도 이 지역의 유해환경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배경을 계기로 아동 보호 및 선도와 복지에 앞장서기 위하여 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했다.

본 지역아동센터는 2002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법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비, 문화체험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를 지원받아 아동 문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② 목적 및 목표

- 목적 :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 가정폭력, 학대, 비행, 왕따 등의 문제로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아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맞벌이 세대, 한 부모가정, 조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적절한 보호자 없이 방임되어 있는 지역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목표 :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신체적 보호제공 하며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게 학습과 문화체험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과 특별 활동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 및 잠재력을 향상

③ 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 : 학습공간(갯수:4), 사무실, 조리실, 상담실, 화장실, 목욕실, 집단지도실(놀이공간), 어린이도서관, 컴퓨터실

나. 인력

구분	시설장 (법인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보건위생교사	아동복지교사	야간보호 전담교사	계
인원수	1	1	1	1	2	6

다. 재정 : 2008년 예산 총 136,344,000원

④ 프로그램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보호프로그램	위생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교육프로그램	학습지도,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특기적성개발, 특강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연관람, 명절행사, 특별행사	
복지프로그램	사례관리, 아동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아동결연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모집·관리 및 교육, 후원자모집 및 관리, 지역의료기관연계서비스제공	

⑤ 협력기관

지자체 :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교육기관 : 강북교육청(교육복지투자사업), 북산·울산·양사·함월·옥성초등학교

상담기관 :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관련기관 :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사과나무, 징검다리, 울산양육원

의료기관 : 굿모닝병원, 마더스병원, 동강병원, 굿마인드병원

지역연계기관 : 울산교회, 남울산교회, 동성교회, 웨미리스파, 삼성비피화학, 손사랑회,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등

⑥ 파급효과

가. 저소득·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방과 후 안전 보호 증대

나.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적응력 향상

다.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및 특기적성개발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잠재력 향상

라.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의 유대관계를 향상

⑦ 평가 및 추후계획

가. 평가 : 프로그램 사후검사 실시, 아동 참여도, 아동 반응 관찰일지,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

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 및 유급강사 설문조사, 각종프로그램 결과물 및 소감문 등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 내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될 만큼 저소득층 아동들의 대안적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진다.

나. 추후계획

- 일선의 공부방 개념에서 벗어나 이용 아동들의 욕구와 특기에 맞춘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이며 포괄적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가정 및 부모자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 센터 내 심리치료를 마련하여, 요일 별로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3. 밝은미래청소년센터

① 시행동기 및 역사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북산1·2동, 북정동, 옥교동)에서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보호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내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학습지원, 다양한 문화적체험의 기회의 제공하며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본 기관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까지 한화석유화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수능공부방을 위탁 운영하였다. 하지만 2008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오던 수능공부방사업의 종결과 함께 현재는 ‘밝은미래청소년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인전입금과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목적 및 목표

- 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신체적 보호제공
- 나.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과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존감 향상

③ 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 : 컴퓨터실 (14.58평), 상담실(7.12평), 청소년공부방(7.12평)

나. 인력

구분	총괄자(법인사무국장)	팀장	담당실무자
인원수	1	1	1

다. 재정 : 2008년 예산 49,150,140원

④ 프로그램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보호사업	무료급식제공, 방과후 보호서비스	
상담사업	이용청소년 개별상담, 집단상담, 방문상담, 부모/ 가족 상담, 멘토링사업	
교육 및 학업지원사업	기초학습지도, 성교육, 금연교육, 미술치료교육, 음악치료, 독서치료, 약물오·남용교육	
취미·여가활동지원사업	미술실기, 제과제빵, 체육, 리본공예, 아이클레어, 생활소품만들기	
문화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하동절기 캠프, 기업체박물관견학, 소풍, 연극영화 스포츠경기 관람	
의료지원사업	건강검진, 병원동행, 지역연계기관을 통한 의료지 원서비스	

⑤ 협력기관

- 가. 지자체 :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 나. 교육기관 : 강북교육청(교육복지투자사업), 울산중학교, 울산여자중학교
- 다. 상담기관 :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라. 청소년관련기관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문화의집
- 마. 의료기관 : 울산남구정신보건센터, 굿마인드병원, 중화한의원
- 바. 울산교회

⑥ 파급효과

- 가. 저소득·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 후 안전 보호 증대
- 나.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적응력 향상
- 다.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전인적 발달 촉진
- 라. 심리·적성 및 진로상담, 개인 또는 집단상담을 통한 현실 문제해결력 향상

⑦ 평가 및 추후계획

가. 평가 : 이용청소년만족도 조사, 보호자만족도조사, 자원봉사자 및 유급강사 설문조사, 각종 프로그램 결과물 및 소감문 등을 통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학교는 물론 중구 내 타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도 부적응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호·관리·지도함으로써 일탈을 예방하고 비행 정도를 지연시키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진다.

나. 추후계획 : 일선의 공부방 개념에서 벗어나 이용청소년들의 각자의 욕구와 특기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시 속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센터로 도약하고자 한다.



4. 꿈이 자라는 책마을(어린이도서관)

① 시행동기 및 역사

2003년 5. 3 개관하여 울산시 중구지역 주민을 위하여 독서지도 및 취미활동,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 지식정보서비스와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와 자녀가,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함께 함으로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와 지식기반시대에 자신을 발전시키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며, 사회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② 목적 및 목표

가. 어린이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마을’은 지식, 정보,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자원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나. 어린이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마을’은 독서, 취미, 문화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 : 밝은미래복지재단 2층 위치(97.58㎡)

나. 인력 :

구분	총괄자	팀장	자원봉사자
인원수	법인 사무국장	1	20

다. 재정 : 2008년 예산 2,270만원

④ 프로그램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부모교육및 독서치료프로그램	동화 읽는 어머니 모임, 독서특강, 어머니 독서 모임, 독서치료프로그램	
독서지도 및 북아트프로그램	이용청소년 개별상담, 집단상담, 방문상담, 부모/ 가족 상담, 멘토링사업	
취미 및 만들기 교실	어린이 만들기 교실, 생활소품 만들기, 한지공예, 생활스트레칭	
자기관리 프로그램	어린이자기관리 프로그램	
아나바다장터	연3회 아나바다장터 개설을 통해 공동체 문화기여	

⑤ 협력기관 : 중구청 문화체육과, 중부도서관, 울산 색동회

⑥ 파급효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에게 책 읽는 문화를 발전시켜서, 어린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부모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체 문화를 향상에 기여한다.

⑦ 평가 및 추후 계획

울산교회와 밝은미래복지재단 인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이 밀집한 중구지역에 책 읽는 문화를 파급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더 많은 아동, 청소년, 부모를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

이다.

- 가. 도서관 이용교육 : 격월로 실시
- 나. 독서지도 실시(초등 저, 고학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다. 독서캠프 : 여름겨울방학 연 2회 실시
- 라. 독서골든벨 : 매년 10월 중 실시
- 마. 책과 저작권의 날(4.23) : ‘책마을’ 가족과 함께 하는 야간개관, 가족과 함께 책읽기, 영화상영, 구연동화
- 바. 영화상영 : 매월 1회 실시
- 사. 자녀교육 특강
- 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구연동화 :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 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 한국문화교실



5. 백합 장애아동주일학교

① 시행동기 및 역사

가. 시행동기

울산은 장애아동의 사회통합 및 전인적 재활을 위한 궁극적 대안인 공동체 적응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기관은 울산의 장애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주일예배와 정기적인 야외활동, 캠프, 다양한 연계활동을

을 통해 장애아동의 신체발달과 사회활동적응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역사

- 2002년 4월 21일 울산교회 내 백합부 설립
- 2004년 10월 밝은미래복지재단으로 소속 이전

② 목적 및 목표

백합부 활동을 중심으로 장애 아동의 사회통합 및 전인적 재활과 사회 공동체 적응에 도움을 준다.

③ 시설, 인력, 재정

- 가. 시설 : 밝은미래복지재단 2F 전 시설 개방, 주일 및 필요 시 사용
- 나. 인력 : 총괄자 : 정지훈, 백합부 부장 : 우항수, 백합부 회계 : 백숙자,
- 다. 재정 : 2008년 총 예산 22,540,000 원

④ 프로그램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주일예배	신체활동, 연결활동, 간식제공	
야외예배	신체활동, 체육활동, 간식제공	
봄소풍	자연학습, 점심제공, 체험활동	
여름캠프	수영활동, 예배활동, 신체활동, 간식제공, 체험활동	
성탄행사	부모님과 함께 예배활동, 성경퀴즈, 점심 식사, 신체활동	

⑤협력기관 :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부모회, SK 대외협력팀 등.

⑥파급효과

- 가. 주일 예배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나. 다양한 기관 연계활동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전인적 발달 촉진
- 다. 신체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과 감각발달 촉진

⑦평가 및 추후계획

연간 행사 후 이용아동 부모님과의 간담회와 교사회의 및 자체 평가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완하여 장애아동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계획 : 장애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욱 다양한 사회적응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용아동은 물론 가족들에게 작·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

① 시행동기 및 역사

친족성폭력피해자, 울산 남구 청소년집단성폭력피해자, 밀양청소년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울산 지역에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격리 및 보호 시설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성폭력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징검다리’를 설립했다.

② 목적 및 목표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긴급격리 또는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생활안정과 진학,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 한다.

- 가. 시 설(178.2㎡)
 - 3F : 사무실, 미술치료실(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체력단련실
 - 4F : 방2, 거실, 부엌, 화장실, 사무실

나. 인 력

구분	시설장	상담원	계
인원수	1	2	3

다. 재 정 2008년 예산 128,347,000

④ 프로그램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심리상담	개별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생활지도	일상생활 및 생활계획	

교육연계	학교지원, 학습지원, 예체능 교육,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의료지원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의료연계 및 의료보호 정기점검, 장애판정	
법률지원	고소, 고발, 재판과정 지원	
심리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	
정서적 지원	생일, 명절 행사, 연극, 영화관람, 문화탐방, 체험활동 및 견학활동, 요가, 여행캠프	
성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올바른 성인식 교육	

⑤ 협력기관

-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 상담소, 1366, one-stop지원센터, 학교, 경찰, 관공서, 울산교회, 굿마인드의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프라우메디병원, 마더스병원, 밝은미래복지재단, 신나는 아동쉼터, 꿈나눔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⑥ 파급효과

성폭력으로 학대받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긴급격리 및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상황을 극복하고 심신을 회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성폭력피해는 물론 가족 및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⑦ 평가 및 추후계획

2005. 7. 개소 이후 지금까지 총 27명의 피해자가 입소하여 피해자 및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심리적, 의료적, 법적, 사회복지적 지원을 한 결과, 단 1명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이 원만하게 귀가 또는 취업, 타 사회복지시설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본 시설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친족성폭력피해자의 경우 1회 연장 가능기간(3개월)을 포함하여 총 9개월 동안의 일시보호·치료가 끝난 후에도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 내 장기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재단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징검다리의 보호가 끝난 친족성폭력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등을 직접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7. 울산성폭력상담소

① 설립동기 및 역사

본 기관은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건강한 성문화를 이루어 가는 일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이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본 기관은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전문 상담, 보호기관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5년 7월 울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설립자 김옥수)로 시작하였다가 2006년 4월, 밝은미래복지재단으로 소속을 이전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울산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바꾸어 수혜 대상자들의 범위를 확대하

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같은 법인 부설 기관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의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보호관찰대상 성폭력 가해자 및 비행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성교육, 성폭력예방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전문상담원 및 성교육강사 양성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② 목적 및 목표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나. 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건전 성문화 정착

③ 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95.7㎡) :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탕비실, 화장실

나. 인력

구분	소장	상담실장	상담원
인원수	1	1	1

다. 재정 : 2008년 총예산 80,783,000원

④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성폭력피해자 부모치료 프로그램	
성폭력가해자 교정 사업	성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교육 사업	교육기관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 및 장애인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대상 개인 및 집단 성교육프로그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사업	교육기관, 직장,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사업	성폭력 전문상담원, 성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심리치료 사업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및 비행청소년 대상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⑤ 협력기관

가. 지자체 : 울산광역시청, 남구청

나. 교육기관 : 각 초·중·고등학교, 강남교육청 등

다. 상담 및 보호시설기관 : ONE-STOP, 1366, 울산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징검다리’

라. 법률기관 : 보호관찰소,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법원

마. 의료기관 :굿마인드병원, 마더스병원, 동강병원 등

⑥ 파급효과

가.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피해자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다.

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고 올바른 개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켜 성폭력 피해와 가해를 예방할 수 있다.

라. 상업적, 가부장적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써 양성평등한 성문화를 조성, 확산시킨다.

⑦ 평가 및 추후계획

프로그램 및 강의 의뢰 단체들의 평가,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들의 평가, 각종 프로그램 평가지 및 소감문 등을 통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피해자 중심, 여성중심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여성 및 가해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의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추후계획 : 본 상담소는 '교육을 통한 성폭력예방'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형태의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생,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대상에 따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 높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8. 문수실버복지관 사업안내

① 시행동기 및 역사

가. 시행동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자활, 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정 및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욕구 해결을 위한 자조적 기반을 구축하여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 어르신중심의 감동이 있는 복지관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 ㉢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하는 복지관

나. 목표

- ㉠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질적 만족도 제고
- ㉡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사례관리
- ㉢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홍보 강화
-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 ㉤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수행능력 향상

③ 시설 현황

가. 시설 : 부지/면적: 9,943(3,007평) / 2,624(794평)

건물현황: 지하 - 당구장, 장기바둑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이미용실, 노래방

1층 - 카페, 안내실, 탁구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노인복지센터

2층 - 사무실, 도서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서예실

3층 - 행복 레스토랑(경로식당), 대강당

옥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쉼터, 야외산책로, 주차장

나. 인력

기관명	문수실버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총 인원
	관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운전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인원(명)	1	2	5	1	1	1	1	1	1	2	1	17

다. 재정 : 2008년 총 예산 701,062,000(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제외)

④. 프로그램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회교육사업	○ 어문학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 건강관리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 ○ 미술프로그램 등
노인 대학	○ 문수실버예술대학(합창, 국악, 미술, 연극반)
재가복지사업	○ 재가어르신 지원 사업 (일반찬 지원, 방문물리치료 및 간호,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경로당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	○ 교양여가프로그램(풍선아트, 신바람체조, 건강체조 등) ○ 건강관리프로그램(건강상담, 수지침 등) ○ 기타지원서비스(일반찬제공, 환경개선, 이미용서비스 등) ○ 지역연계프로그램(명절단합대회, 경로당임원진 간담회 등)
지역복지사업	○ 봄가을 나들이,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지역탐방, 무료축구관람, 이미용서비스 등 ○ 운영위원회 운영, 각종 협회행사 참여 등
보건재활사업	○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운영, 건강강좌 개최, 요통 및 관절염 교실 개최, 응급처치 및 구급약 제공 등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 자원봉사자 교육, 노인자원봉사단운영, 자원봉사자 산행 ○ 후원모금행사, 후원행사의 밤
홍보출판 및 조사교육사업	○ 리플렛 제작, 평가보고서 발간,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 ○ 이용만족도 및 욕구조사,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 직원연수 등
기타 사업	○ 실버카페 운영, 도서실 운영, 동호회 운영, 제안사업 신청 등
노인일자리사업	○ 노노케어사업, 교육강사파견사업, 카페일자리사업 등
경로식당 운영	○ 매주 월~금 11:50~13:00 운영

⑤ 협력기관

울산시남구청, 울산시남구보건소,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병원, 동강병원
 울산성모안과, 춘해대학, 창신대학, 삼산요양병원, 메디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교회, 문수교회, 무거성당, 금호석유화학, 현대자동차, S-OIL, KT남울산지점
 (주)현진에버빌,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무거고등학교, 신복초등학교 등

⑥ 파급효과

- 노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
- 지역교회의 어르신 섬김 문화에 앞장서는 건전한 교회상 정립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활성화
-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 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 인식제고를 통한 예방 및 개선 효과
- 노인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유지 및 회복에 기여

⑦ 평가 및 추후계획

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관, 어르신 중심의 감동이 있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운영법인인 울산교회 설립 밝은미래복지재단의 기독교적 이념에 따라 사회교육과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돌아보며 노후의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족하나마 감당하였다.

나. 지난 1년 동안의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이용 어르신의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자조활동을 적극 이끌어내고자 한다.

다. 지역내 물적·인적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원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설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한다.

마.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강화 및 외부교육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

바. 운영법인을 설립한 울산교회의 선교이념에 부합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영혼구원을 위해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활동보다는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자한다.

9. 이주외국인 선교회

① 시행동기 및 역사

본 기관은 한국에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과 결혼 이민자로 온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울산교회는 2002년부터 울산지역에 그 숫자가 늘어가는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시설 및 기관이 필요함을 알고, 필리핀과 구 소련권의 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팀을 구성하였다. 그 후 2005년 베트남팀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필리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지역 등 5개 팀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난 2008. 4. 12에는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외국인 센터(140평)를 개소하여 그들만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였다.

②목적 및 목표

가.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극복

- 가-1. 한국의 직장 생활의 문화 교육
- 가-2. 한국의 예절 문화 교육
- 가-3. 한국어 교실을 통하여 언어 교육

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있어서 문화적 차이 극복

- 나-1. 각 팀마다 한글 교실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 나-2. 연 2회 정도 한국 전통 문화 체험행사(고궁, 박물관 등 탐방)
- 나-3. 고부간의 갈등 및 한국의 가정, 사회 생활 교육

③시설, 인력, 재정

가. 시설(외국인센터) : 컴퓨터실, 세미나실(2),예배실,주방, 남자센터(3), 여자센터, 진료실, 사무실

나. 인력

구분	총괄자(교역자)	위원장	팀장	각 팀별 자원봉사자
인원수	1	1	5	100여명

다. 재정

2008년 예산 : 45,200,000원

④프로그램내용

외국인 사역은 주일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간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 주간에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일 사역과 이들의 생활이 달라진다.

가. 외국인 심방 - 국제결혼 가정들을 돌아보고 심방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들도 일을 마치는 저녁시간에 기숙사를 방문해 심방을 한다. 노동자들이 보통 오후 7시쯤 일을 마치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 심방이 가능하다. 간혹 잔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밤 11-12시쯤 방문하여 빵과 우유, 음료 등을 주면서 위로하기도 한다. 회사에서도 심방하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데, 노사 간 다른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심방 가운데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나. 임금체불문제 해결 - 일부 회사들로부터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도 월급을 못받는 일이 발생할 시, 여러 지역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월급을 받아준다.

다. 통역 - 대부분의 회사들이 통역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또는 회사 관계자들과 서로 통역을 하여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으로 직

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도 통역 한다. 사용주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통역 등 자주 도와 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한다.

라. 병원 데려 가기 - 울산교회 의사모임 누가회를 통해서 병원을 소개 받고, 아파도 공장에서 병원을 데려가 주지 않거나, 국제결혼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결혼 이민자가정 자매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병원비와 약값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을 위해서 울산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 치과, 소아과, 한의원, 안과 등.

마. 물품 구입 - 외국인들은 일을 하면 늦게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사고 싶어도 잘 사질 못한다. 물건을 사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트에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물건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대신 인터넷 구매를 하여 심방을 할 때 전해준다.

바. 은행 송금 - 공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은행 갈 시간이 없다. 고국 송금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주지만,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 공장도 있다. 그리고 공장에서 송금을 해주어도 불성실하게 해 줄 때가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사. 불법체류자가 잡혀갔을 시 -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잡혀갔을 경우에는 보통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철장에 가서 위문을 하고 잡혀갈 때 챙겨가지 못한 옷이나 물건들을 대신 챙겨서 갖다 주는 일을 한다. 혹시 당시 불법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난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 가서 임금을 받아서 본인에게 직접 전해 준다.

아. 한국어 강좌 - 주로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는 국제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들이 얼마만큼 한국어를 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에 적응하고 가정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 러시아, 필리핀팀(영어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쉼터(탁아방).
- * 베트남팀: 토요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세례교육실.
- * 몽골팀: 매주 주일 오후 1시 쉼터(소망방).
- * 중국팀: 매주 주일 오후 1시 쉼터(예배실).



⑤협력기관

- 가. 교 회 : 울산교회
- 나. 교육기관 : 밝은미래복지재단
- 다. 의료기관 : 소망부부치과, 중화 한의원, 길메리병원, 나사렛피부과, 울산교회 누가회 등
- 라. 금융기관 : 농협(울산 양정지점)

⑥파급효과

- 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능력과 효율을 올릴 수 있다.
- 나. 타문화 속에서 고국의 동족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됨.
- 다.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하여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한다.

⑦추후계획

이주 외국인을 위해서 울산교회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쉼터가 2008년 4월 12일 개원예배를 드렸다. 이 쉼터는 노동자로 온 외국인이 직장을 잠시 잃었다든지, 결혼이민자들이 이혼 또는 가정폭력으로 쉼터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공간이며 피난처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료지원이나 교육장으로도 사용된다.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주 외국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10. 사랑의 집짓기 팀 운영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집수리, 농어촌 교회 및 사택 리모델링, 울산교회 선교사업지역(북한 포함) 유치원, 기관 등 신축,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11. 지역내 저소득층 가정 생활비 또는 장학금 지급

12. 학사 운영(울산, 부산, 서울)

13. 울산 기독교사랑나눔회, 아름다운 가게 수시 지원

이 외에도 울산교회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하남은광교회>



-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319-14번지
- ❖ 담임교역자 : 손 증기 목사
- ❖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 ❖ 교인 수 : 600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홈스쿨, 노인복지센터
- ❖ 홈페이지: hanamekch.com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다.

성도를 위하여 주일에, 홈스쿨 아동들을 위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노인들을 위하여 금요일에, 토요일에는 각종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 밥솥에 불을 지피는 따뜻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밥이 무슨 대수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먹는 밥도 해서 먹기 싫어서 식당가서 때우는 시대에 밥상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은 보통 봉사가 아니다. 봉사는 사랑이 전재(前在)하고 사랑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전재(前在) 되어야 한다. 가슴이 뜨거워야 밥상이 된다. 뜨거운 밥상은 사랑의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다.

복음전파도 같은 논리다. 가난함이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러워 울었던 유소년 시절이 내게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난에게 자신의 삶을 지고 싶지 않았다. 배우고, 보람 있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다짐했다.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귀중한 인생이 버림받는다면 인간이 사는 사회일 수 없다. 인간사회라면 최소한 더불어 살아가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거창하게 사회복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당연한 것을 하면 마땅한 것이지 소문낼 것도 날것도 없는 일이다.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꼭 말해 보라고 한다면 가난했던 서러운 시절과 함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복지목회를 하도록 강하게 마음다짐하게 했다고 본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선두에 선 사람들이다. 서야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부여는 이웃을 섬길 때 찾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진리는 규정하고 있다. 교회는 산자의 공동체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떡과 복음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담기를 위하여 교회가 모은 이들의 안전지대,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교회복

지 목회의 계기로 말하고 싶다.

❖ 프로그램 소개

1. 하남은광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 시행동기 및 역사

시행동기

교회 인근 지역내 한부모 가정과, 조부모가정, 맞벌이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방임되는 아동들을 보호및 학습지도, 급식, 탈선예방 및 복음전도를 위하여 시작하게 됨.

역사

- ① 2005.7.12일 광주 기아대책과 연계하여 “행복한 홈스쿨”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함
- ② 2006년 11,12개월 광산구청으로부터 운영비 400만원 지원받음
- ③ 2007년 1월~12월 광산구청으로부터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음
- ④ 2008년 현재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으며, 급식비는 방학중으로만 결정,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음

2) 목적 및 목표

- 1. 방과 후 방임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결식 문제 및 영양상태 개선한다.
- 2. 방과 후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 3. 집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성을 키운다.
- 4. 특별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을 증진시킨다.
- 5.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시설인력. 재정

종사자

직 위	성 명	임용일	소지자격
시설장	이동만	2005.7.12	사회복지사 1급
생활교사	강미순	2007.11.1	보육교사 1급
차량	송희중	2005.7.12	대형 1종보통

재정

세입예산서							
(단위:원)							
항 목				산출기초	재원구분		
관	항	목	세목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32,160,000	24,000,000	8,160,000
보조금	보조금수입	소 계			32,160,000	24,000,000	8,160,000
		경상보조금		운영비 24,000,000	24,000,000	24,000,000	
자부담	자부담			8,160,000	8,160,000		8,160,000

세출예산서							
(단위:원)							
항 목				산출기초	재원구분		
관	항	목	세목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32,160,000	24,000,000	8,160,000
인건비	인건비	소 계			20,160,000	12,000,000	8,160,000
		급여	복지사	10,800,000	10,800,000	10,800,000	
		법정복리비	4대보험	2,400,000	2,400,000	1,200,000	1,200,000
		기사급여		7,200,000	6,960,000		6,960,000
사무비	운영비	소 계			4,320,000	4,320,000	
		사무행정비	사무행정	480,000	480,000	480,000	
		차량비	차량주유	1,440,000	1,440,000	1,440,000	
		운영비	공공요금	2,400,000	2,400,000	2,400,000	
사업비	프로그램비	소 계			7,320,000	7,320,000	
		사업운영비	학습 및 예체능교육	3,000,000	3,000,000	3,000,000	
		문화체험활동	문화체험	2,400,000	2,400,000	2,400,000	
		자원봉사자수고비	교통비	1,920,000	1,920,000	1,92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소 계			600,000	600,000	
		시설비	부대경비	600,000	600,000	600,000	

4) 프로그램

월 교육계획안			
기간	2008년 1월 ~3월	작성	하남은광홀스쿨지역아동센터
〈 활동 내용 〉			
영역	소주제	내용	
기 본 활 동	보호	생활지도	· 긍정적 사고관을 갖도록 지도 ·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기있게 사과할 수 할 수 있도록 지도. · 기본 예절과 청결지도
		급식	주 5 회 간식. 주(월-금): 5회 석식(중식).
		위생지도	손씻기. 양치질하기. 주변정리정돈 및 기본청결교육, 기본질서교육,
	교육	기초학습지도	· 매일숙제및전과목학습지도 .저학년- 받아쓰기 .고학년-수준별 논술지도-주2회(강미순) · 8급,7급 한문지도 (주2회)-윤 석선생님 · 6급,4급 한문지도 (주2회)-강미순선생님 · 영어지도 (주2회)-박현경선생님 · 수학수준별 (주2회)-성진아선생님
		정기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 체육활동-매주목,금요일(김경희선생님) · 독서지도-강미순선생님 · 미술 및 만들기-주1회.최옥기 선생님
		아동관리	아동 상담-(수시) 실무자 선생님
	복지	부모상담 및 교육	· 전화 수시 상담 및 부모개별상담 <부모교육> · 학습장애 아동 · 따돌림 당하는 아동 · 과잉 행동 장애 아동 · 품행장애아동 · 틱 장애아동 · 나-전달법으로 아동과 대화하기 등
		지역 연계활동	· 월곡동사무소 · 미셀꾸쟁제과정 · 해태유업대리점 .청기와푸드뱅크 .하남은광교회
	문화	영화,연극관람	광산문화예술회관,콜롬버스영화관
	월 행사	1월	도자기체험활동, 예절배우기
2월		영화관람	
3월		꽃씨심기, 봄꽃박람회관람	

■ 주간 교육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13:00-14:00	등원 및 자유놀이				
14:00-14:30	독서지도				
14:30-15:30	미술 활동	전과목 문제집풀이	비즈공예	체 육	수 학 전과목문제집 풀이
15:30-16:40	*한문-8,7,6급	*한문-8,7,6급	비즈공예	수 학	체 육
16:40-17:00	청소 및 정리정돈				
17:00-18:00	식사 및 귀가지도				

■ 일일교육프로그램

2008년	1월 7일 월요일	교 사	시설장
주제			
학습목표	미술을 통해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시간	활 동 내 용		
14:00 ~ 14:30	* 독서지도		
14:30 ~ 15:30	* 미술-전학년		
15:30 ~ 16:30	* 전과목문제집풀이		
16:30 ~ 17:00	* 청소, 정리정돈, 손 씻기		
17:00 ~ 18:00	* 저녁식사, 귀가지도		

5) 협력기관

미셀꾸쟁제과정-주 3회 빵 제공
 해태우유(동원데어리푸드)-우유,요구르트, 등 우유 매일 제공
 청지기 푸드뱅크-빵,음료,과자 수시제공,
 하남은광교회-급식자원봉사자참여

6) 파급효과

어려운 한부모, 조부모가정과,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약 30명의 자녀들이 홈스쿨에 와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영어, 미술, 체육, 한문, 비즈공예, 등을 배우며, 자기계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건문을 넓혀가고, 저녁식사제공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다.

또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형, 동생, 언니, 오빠들과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사회성발달과 서로간의 예절을 배워가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홈스쿨이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지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의제공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2. 소망노인복지센터(독거노인 돌봄 사역)

1) 시행동기 및 역사

시행동기

광산구 지역내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하남은광교회가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전도를 위하여 시작하게 됨.

역사

- ① 2004. 12. 30 광산구청으로부터 재가복지시설로 허가받아 “소망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시작함
- ② 2005년 유급봉사원 2명을 채용하여 독거노인을 돌봄(40명).
- ③ 2006년 유급봉사원 4명을 채용하여 독거노인을 돌봄(80명).
- ④ 2007년 “손 종기”로 시설장 변경, “소망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소망노인복지센터”로 명칭변경
- ⑤ 2008년 요양보호사 4명 훈련 교육 시작

2) 목적 및 목표

신체적·정서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영세가정의 가족들에게는 가족 수발의 부담을 덜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에 있다.

3) 시설인력, 재정

종사자

직 위	성 명	소지자격
시설장	손종기	사회복지사 2급
유급봉사원	서향님	봉사원교육
유급봉사원	유금례	봉사원교육
유급봉사원	황생자	교육,간호조무사
유급봉사원	나오임	봉사원교육
사무	장영희	복지학과 재학

재정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6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법인유입금		
총 계						95,600		
보조수입	보조수입	법인유입금	95,600			95,600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6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법인유입금		
총 계						95,600		
인건비	소 계		소계	95,600				
	인건비	시설장 1인	12,000			12,000	12X1,000	
		사회복지사	12,000			12,000	12x1,000	
		사무원 1인	9,600			9,600	12x800	
		차량기사1인	12,000			12,000	12x1,000	
		유급봉사4인	12,000			12,000	12x4x250	
상담비	상담비	상담비	26,000		26,000	50x52x10,		
가정 봉사원	가정 봉사원	봉사원 식비지원	2,000		2,000	300x3x2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5,000		5,00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1,500		1,500			
사무비	사무비	사무비	1,500		1,5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		1,000			

4) 프로그램

계획안			
기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작성	소망노인복지센터
< 활동 내용 >			
영역	소주제	내용	
기본 활동	보호	생활지도	· 긍정적 사고관을 갖도록 상담 · 삶의 의미를 찾도록 상담 · 기본 의지 및 성취감
		동행	· 병원 동행 - 차량이동 서비스 · 민원처리 동행 · 영정사진 촬영
	교육	노인대학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한글반, 영어반, 컴퓨터반, 건강체조반 등 · 중식 제공 · 차량운행
		가사지원	· 청소, 빨래, 환기, 식사준비, 반찬지원 등
	복지	목욕	· 매월 1회 목욕서비스
		중식	· 매월 1회 중식제공 서비스
		연계기관, 단체	·광산구노인복지센터 ·월곡동사무소 ·미셀구정체과점 ·해대유업대리점
	문화	영화관람, 문화활동	· 영화관, 소풍, 체험, 관람 등

5) 협력기관 : 광산구 노인복지센터, 광산구청, 월곡동사무소, 해대유업

6) 파급효과 :

주변의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으로 복음전파에 좋은 통로가 되어 영혼 구원의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 계획 :

현재의 가정봉사원 파견만으로는 여러 가지 보충해야 할 서비스가 있다. 그럼으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까지 갖추어 더욱 구체적인 봉사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교회의 원래 목적인 복음전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년교회>



- ❖ 위치 : 광진구 자양1동 628-23번지
- ❖ 담임교역자 : 안수경 목사
- ❖ 교단 : 한국기독교장로회
- ❖ 교인 수 : 20여명
- ❖ 2007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 푸른꿈 지역아동 센터, 나눔선교센터, 여성상담센터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희년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평화를 만드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희년교회의 모체가 된 희년의 집은 한국교회가 희년으로 선포함 1995년을 맞이하면서 성서의 희년정신에 따라 누나무과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 속한 각 지교회 여신도들이 만들었습니다. 희년의 집이 만들어져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1994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공부방이었고, 이후 무의탁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신앙적 돌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작은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희년신앙공동체를 1997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인의 대다수는 무의탁 어르신들, 공부방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지역의 복지운동 활동가들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1. 푸른꿈지역아동센터와 1318해피존 새움터(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운영

1) 시행동기 및 역사

희년교회의 모체가 된 희년의 집은 한국교회가 희년으로 선포함 1995년을 맞이하면서 성서의 희년정신에 따라 누나무과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 속한 각 지교회 여신도들이 만들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1994년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방과후에 돌봐

주는 푸른꿈공부방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 공부방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고생을 초등학생 때처럼 돌봐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2007년 12월에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1318해피존 새움터를 오픈하게 되어 중고생을 위한 행복공간이 하나더 만들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2) 목적 및 목표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 조모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학습을 지원함과 아울러 정서적 지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푸른지역아동센터: 교사 3명/ 자원봉사자 30여명/
구청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기타 후원자와 희년의집과 교회 지원

-1318해피존 새움터: 교사 3명/ 자원봉사자 30여명/
1318해피존 사업단의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2009년까지),
기타 후원자와 희년의집과 교회지원

4) 프로그램 내용

- 푸른꿈지역아동센터 : 급식지원, 집중학습지도, 글쓰기, 영어, 동화읽기, 태권, 공동체 학습, 맞춤형 지도, 모듬활동(미술, 풍물, 심리정서 치료(미술치료), 토요현장체험학습, 문화체험활동 등



체육과 공동체 놀이



특기·적성 교육



문화체험



- 1318해피존새움터: 급식지원, 기초학습지도(영어, 수학, 국어, 논술), 일일학습(영어단어, 논술), 책읽기, 뭐든지 물어봐 (기타단과목-과학,사회 개별학습과 숙제지도), EBS인터넷 강의(영어, 국어, 수학), 특별활동과 동아리활동(축구, 농구, 배드민턴, 피아노, 뜨개질, 미술, 요리), 문화체험활동(유지컬관람, 발레 공연관람), 야외활동(스케이트), 안전교육(화재 시 안전교육, 성교육)등



5) 협력기관

- 희년의집,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광진주민연대 늘푸른가게, 광진구자원봉사센터, 광진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1318해피존 사업단, 광진복지네트워크 등

6) 파급효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 한부모, 조모가정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안정감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역할훈련, 좋은부모되기 등을 꾸준히 교육해 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엄마처럼, 고모처럼, 이모처럼 돌봄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난의 대물림, 교육격차의 대물림이라는 연쇄사슬을 끊어가는 데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14년 동안의 평가는 긍정적이고 흡족하다. 그럼에도 앞으로 더 질 높은 교육과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희년의 집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 집을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과 어르신 위한 종합 세대공감 복지센터로 만들어가는 일에 주력하려한다.

2. 나눔선교센터 운영

1) 시행동기 및 역사

희년의 집을 개소한 후 두 번째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1994년 12월부터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식량지원과 반찬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이었다. 자식은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아 무의탁어르신이 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정을 돌봐드리면서 쌀지원과 반찬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희년교회 교인이 되신 분들도 7분이나 된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 수급자 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현재 우리가 돕고 있는 어르신은 10분에 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나눔 사업은 지속해 나갈 것이다.

2) 목적 및 목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삶을 돌봄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희년의집/ 담임목사와 여신도 들/ 희년의 집과 희년교회 재정지원

4) 프로그램 내용

- 저소득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지원사업/ 월1회 10명에게 지급
- 무의탁어르신 반찬, 쌀, 생필품 지원사업-주1회/ 월2회
-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년1회

-무의탁어르신초청 성탄축하의 밤 행사-년1회

5) 협력기관

-희년의집,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광진주민연대 늘푸른가게, 광진구자원봉사센터, 광진

복지네트워크, 광진주민연대 아기사랑 후원회 등

6) 파급효과

-장학금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무의탁어르신 돕기 사업은 지역의 많은 단체들로 하여금 무의탁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은 14년의 되어가면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이 되면 따뜻한 사랑의 소식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편 년 1회 실시하는 무의탁어르신 초청 성탄축하의 밤은 3년째를 맞이했는데 벌써 올 성탄축하의 밤을 기다릴 정도로 홀로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희년교회와 희년의 집이 함께 펼쳐가는 나눔선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교인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눔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더 많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본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장나누기

무의탁노인 쌀과 반찬 지원



희년여성의집 상담

가족치료공부모임

장학금 지원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의 당연한 실천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계획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교회 지도자 및 평신도 사회복지학교를 개설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간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창립되었다.



1. 창 립 : 2000년 4월 24일
2. 세 미 나 : 1차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2차 "출판기념회와 세미나"
3차 "교회시설개방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
3. 교육활동 : 2001년 "사회복지 실천학교" 운영
교회 및 신학대학 순회강사 지원
2003년 "교회사회복지아카데미" 진행
2004년 "교회사회복지아카데미" 진행 (목회자/평신도)
4. 출판활동 :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와 건강한 사회"
"교회시설개방과 복지 그리고 선교"
2003년 제 1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2004년 제 2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일반 성도를 위한 교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자료집
목회자를 위한 교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자료집
2005년 제 3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교회 사회복지 실천 사례집
5. 시 상 : 2003년 "제1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시상
2004년 "제2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시상
2005년 "제3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시상
2006년 "제4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시상

6.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

교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cowork(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7. 위원소개

[고 문] 김동엽 목사 (목민교회),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조재호 목사 (고척교회)

[공동 위원장] 조흥식 교수(서울대 교수), 두준기 대표(휴먼테크기술사무소 대표)

[부 위원장] 김현호(목사 / 아시아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총 무] 권오용(법무법인로고스 인천)

[위 원] 강영실(한국성서대 교수), 김동배(연세대 교수)

김미혜(이화여대 교수), 김수정(한성디지털대 교수)

김혜란(서울대 교수), 라창호(반석제로파 대표)

박경숙(경기대 교수), 박정수 목사 (목민교회)

백은령(총신대 교수), 송시섭(조은법률특허사무소)

신산철(크리스천라이프센터 사무총장 / 목사)

신정윤(한양여대 교수), 오세란(서울기독대 교수)

오창섭(서라벌대 교수), 이기영(부산대 교수)

이영규 대표 ((주)우리음식이야기 대표)

이만동(향동교회 목사), 이무영(광신대 교수)

이상근(희망의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영분(건국대 교수)

이창희(서울장신대 교수), 장동한(건국대 교수)

조태례(성민대 교수), 최성재(서울대 교수)